

## 近代 韓國 齒醫學 教育의 發展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半世紀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교수 김규식

### 1. 서론

치의학 교육은 1922년 4월 京城齒科醫學學校가 창설되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래, 1929년 4월에 京城齒科醫學전문학교로 승격되어 해방될 때까지의 치의학분야의 연구와 치과의사를 양성해 오고 있었으나, 1946년 8월 미군정법령 제102호「國立서울대학교 設立에 관한 法令」에 의거하여, 國立서울대학교에 吸收되어 서울대학교 齒科大學이 19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중추적, 치의학교육과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1950년 6.25사변으로 인한 전쟁의 와중에서는 1953년 서울 소공동의 본 교사로 복교하기 전까지 부산지역에서 51년 7월 戰時聯合大學 齒學部(1,2학년)와 3,4학년은 김상찬치과에서 강의와 임상실습을 계속하였다. 52년 5월에는 부산 대청동에서 가교사를 신축하여 1,2,3학년의 강의를 실시하였고 4학년은 김상찬치과 및 부산경찰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게 되었다. 53년 5월 부산 광복동 소재에 부속병원을 임대하여 간이유닛 및 의자 6대로 진료중 7.27 정전회담 이후 서울로 환도하여 수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1953년 9월 1일 전란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14명의 교직원과 374명의 학생이 다시 모여 시설의 복구와 교육의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2학기 개강을 하고 서울 소공동 본 교사에서 강의와 임상실습을 시작되었다.

1952년 4월 1일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구강외과학전공 2명이 입학하여 대학원 교육이 시작되어 전공학문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연구중심학문으로 치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56년 3월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齒醫學碩士(口腔外科學專攻)를 2명 처음으로 배출했다. 그리고 1953년경부터 논의되어 오던 치과대학 교육과정의 연장안이 1957년 문교부 특별교육심의회에서 가결되어, 1959년 1월 대통령령 제1430호로 國立學校設置令이 개정되어 2년제의 齒醫豫科가 신설되어 일반교양과목과 기초적인 전공과목을 교육시키므로서 폭넓고 전문적인 치과의사를 배출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1961년 3월 28일에는 83명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치의예과 제1회 수료생을 배출하여, 동년 4월 1일 본과에 진입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1969년 12월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그 동안의 한국 근대 치의학 교육의 산실이었던 소공동교사를 떠나 69년도 추경예산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선식 의료장비와 교육용 TV폐쇄회로를 갖춘 연건동 28번지(의학캠퍼스)의 신축교사로 이전하였으며, 동대학 부속병원은 1970년 1월 15일에 개원하였고, 1970년 6월 15일에 낙성식 및 성대한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76~77

년에는 55만달러의 영국교육차관(ECGD)에 의거 전자현미경등 41종 49점의 연구기자재를 도입하였고, 연구시설의 계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1977년 7월에 舊 藥學大學 建물을 치과대학으로 인수받아 명실공히 基礎學醫學분야의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1982년~83년에는 미국 EXIM차관에 의해 56만달러에 해당하는 생리현상기록장치등 48종 192점의 연구기자재를 도입하였고 1986년 7월 125만달러의 일본 제3차 OECF교육차관과 1990년 36만달러의 일본 제3차 OECF교육차관 추가분에 의해 주사전자현미경등 159종 623점의 연구기자재를 도입하여 치의학분야의 연구기기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7월 15일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第 3056호에 따라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통합되어, 서울大學校病院이 설립되고 齒科診療部가 설치되었으며, 1993년 5월 18일에는 구 창경국민학교 부지에 치과병원을 신축이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치의학 임상교육과 연구 및 봉사기관으로써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1980년 4월에 서울대학교 규칙 제 525호 의거 齒科大學 附設齒學研究所가 설립되어서, 임상 및 기초치의학 관련 연구와 국민의 구강보건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치의학을 발전시키고, 산학협동연구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67년 경희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설립된 이후 1968년에는 연세대학교도 치과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치의학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후 정부의 치과외사 수급 계획에 의하여 1973년에서 1982년 사이에 7개 대학이 증설되었으며, 1992년에는 강릉대학교 치과대학이 설립되어 현재 11개 치과대학에서 매년 약8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II. 본 론

치과대학은 1992년 4월 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전신인 京城齒科醫學校가 창립된 이래,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기부터 지금까지 선학들이 흘린땀에 의해 1996년 현재 11개 치과대학에서 명실공히 국제수준으로 치의학교육을 발전시키며 오늘의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서는 지난 50년간의 치의학교육의 발전을 시기별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중심으로 회고 하면서 그 의의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 1. 國立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出帆期(1946-1949)

이 시기는 초창기의 여러가지 시대적 사회적 불안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탄생하는 시기이었다. 교수진은 23명이었고 부속병원의 진료과목은 保存部, 外科部 및 補綴部의 3개 部에 불과했으며 기초치의학의 경우는 口腔組織學, 口腔病理學 및 口腔衛生學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각각 1명씩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 교수들의 연구논문을 보면 保存學, 口腔外科學, 및 補綴學 분야의 症例報告가 대부분이고 原著는 드물었는데, 이것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비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어려움속에서도 교수들의 연구는 계속되어 朝鮮齒界(원저 1, 증례보고 3, 1946년)와 朝鮮齒科醫報(증례보고 6, 1947년)에 논문이 발표되었고, 朝鮮齒科醫學會가 주관하는 第1回 學術講演會(원저 10, 증례보고 9, 1947. 5. 18), 第2回 學術講演會(원저 3, 증례보고 7, 종설 10, 1948년 5.23) 및 第3回 學術講演會(1949. 5. 28)에서도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의 첫 결실로, 1949년 7월 15일 金東順 전임강사(口腔病理學)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亞硫酸糊劑에 관한 齒髓態度”라는 논문으로 처음으로 醫學碩士(病理學專攻)학위를 받았다. 이것은 후학들의 대학원 진학의 길을 열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 韓國動亂과 戰災復舊期(1950년대)

1950년 韓國動亂이 발발하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수업은 3개월간 중단되었다가 9월 28일 收復후 개강되었으나, 재차의 서울 철수로 1950년 12월 1일 다시 수업이 중단되었다. 韓國動亂 때에는 적치하에서 戰亂을 피해 남하한 2-3명의 교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서울에 그대로 남아 고난의 여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韓國戰爭 중에는 2-3명의 교수가 행방불명되었으나, 학교내의 施設은 별로 손실되지 않았다.

1951년 1월 부산시 광복동 소재 김상찬 치과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1951년 6월 戰時聯合大學이 설치됨에 따라 7월 1일 1, 2학년생은 戰時聯合大學 醫學部 부산수정초등학교 및 동주여상에서 서울의대, 세브란스의대, 여자의대, 이대의대 및 서울치대 5개대학 의학계열 통합강의를 개시하고 3, 4학년은 그해 9월부터 金相讚 齒科醫院에서 개강하였다. 11월 18일부터는 부산시 대교로 2가 80번지로 재차 연락사무소를 이전하여, 3학년생의 강의는 그곳에서 진행하였고, 4학년생은 金相讚 齒科醫院에서 수업을 계속하였다.

1952년 5월 16일 戰時聯合大學은 해체되고 서울치대 단독교사가 부산시 대청동 4가 2번지 산언덕에 판자집 假校舍를 신축하여 대강의실 및 중강의실 각 1개, 소강의실 2개, 학장실, 숙직실, 창고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분산 수강하던 2, 3학년생과 신입생 전원을 수용하여 강의하였으나, 4학년생만은 임상실습관계로 광복동 金相讚 齒科醫院과 토성동 경찰병원 치과를 이용하였다. 이때의 교직원은 종군, 피납 등으로 교수 2명, 조교수 3명, 전임강사 7명, 조교 2명, 모두 14명으로 감소되어 크게 부족하였다. 기초과목은 의대교수에게 의뢰하고, 그외의 과목은 시간강사로 충당하였다. 당시의 재적생은 296명이었다.

1953년 4월 초에는 부산 광복동 1가에 개인소유 2층건물을 임차하여, 2개월간의 수리공사 후 6월 8일 부속 병원으로 개원하여 4학년(제8회 졸업생)의 임상실습을 의자 6대와 간이유닛으로 실시하였다. 1953년 7월 들어 休戰會談이 진행되면서 1953년 8월 26일 서울 小公洞의 본교사로 復校하게 되어 9월 28일경 2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3년만에 다시 본교사에서 강의와 임상실습이 시작되었다.

피난시절 교수들의 연구는 불가능하였으며 保存學, 口腔外科學 및 補綴學分野에서의 症例報告 정도가 그 연구의 거의 모두이었다. 피난중에도 개최되었던 大韓齒科醫學會 주관 제4회(1952년) 및 제5회(1953년) 學術發表大會에서는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학교측은 大韓齒科醫學會와 공동으로 學術大會도 개최하였다. 1952년 4월에는 李春根조교수가 서울 대학교 대학원에서 “銅의 生物學的 研究”라는 논문으로 醫學博士學位를 받았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개교 이래 의학박사 학위 제1호로서 齒學界의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서울大學校 大學院의 첫 醫學博士學位는 치과외과가 받았다. 1953년 7월 27일 休戰協定으로 성립되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1953년 8월 26일 서울 小公洞의 本校舍로 복교하였으며 9월 28일경 제2학기 등록을 끝내고 3년만에 다시 본 校舍에서 강의를 시작되었다. 戰亂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교수와 학생이 다시 모여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53년 還都後 齒科病院은 保存部의 한 방에서 진료를 하다가 1954년 봄부터 口腔外科部, 補綴部도 診療하게 되었다. 還都後 가장 급선무는 戰亂으로 파괴된 施設을 복구하고,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이었으며 또한 先進國의 最新醫療技術과 정보를 입수하여 낙후된 우리 치의학의 수준을 신속히 향상 발전시키는 것도 동시에 중요한 일이었다.

1954년 KCAC 치과교문관 율텔박사는 일본주둔 美軍病院에서 사용하던 치과외과 47대, 치과유닛 40대를 수리하여 20대를 기증해 주었는데 이를 1955년에 2층 保存科 치료실에 설치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光學顯微鏡(일본 Olympus사) 20대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1950년대에 서울齒大의 再建復舊에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준 또 하나의 큰 요인은 교수들

의 海外留學이라 하겠다. 個人, 西獨國費獎學金, 韓美財團, ICA資金에 의해 미국, 독일 등 각 국으로 상당수의 교수가 유학의 길에 올랐다.

1953년경부터 논의되어 오던 齒科大學 教育年限의 延長案이 1957년 문교부자문기관인 特別教育審議會에서 可決되어 1959년 1월 대통령령 제1430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에 齒醫豫科가 신설되었다. 당시 齒醫豫科는 文理科大學에서 關長하여 齒醫學科(本科)에 進入할 학생들에게 학칙에 규정된 一般敎養科目과 基礎的인 專攻科目을 覆修하는 2년제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방 각국의 원조, 해외유학 및 선진국 교육시찰(12명), 대학원 齒醫學碩士배출(16명), 서울대학교 연구비 지급(7명), 서울대학교논문집 발간 및 치대학술지 대한치과의학회지 발간 등이 있었다. 특히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교수들은 새로운 각도와 견지에서 폭넓게 연구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기존의 保存科, 口腔外科 및 補綴科 등 3개과에서 小兒齒科(1956, 保存學에서 分科), 齒周科(1957년, 第2保存科로서 齒周科가 出發), 齒科放射線科(1958, 口腔外科로부터 獨立), 口腔外科 教授가 關長해 오던 豫診室(1961, 후에 口腔診斷科로 됨) 등 7개의 診療科로 늘어나게 되었다. 50년대에 기초치의학분야에서는 口腔解剖學, 口腔病理學은 물론 구강위생학(1957)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었다. 이러한 분과를 통해 연구는 세분화 되었으며 더욱 활발해졌다.

이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1959년 1월 교수들의 박봉에서 매달 발간비를 거출하여 월간 [齒大學術誌]를 창간한 것이며, 이 학술지를 통해 교수논문(原著, 症例報告, 綜說), 석사학위논문 등을 발표함으로써 학술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56년 봄에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齒醫學碩士學位(口腔外科學專攻)를 받았고, 1957년도에는 齒科補綴學專攻으로 1명이 치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원 석사과정에 口腔解剖學專攻(1959)이 신설되어 기초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졌고, 1960년 4월 1일 서울大學大學院 齒醫學科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이를 계기로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58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金永昌교수가 「Aluminum이 生體에 미치는 影響」이란 논문으로 해방후 치과의사로는 두번째 의학박사학위를 받게 됨으로써 동료교수들에게 연구의욕을 높이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그후 연구에 정진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1960년 초에 의학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교수들의 논문은 [齒大論文集] [서울大學校 論文集(醫學系)] [臨床醫學] [齒醫界] [韓國醫藥] [齒科會報] [最新醫學] 및 [綜合醫學]등에 발표되었으며, 大韓齒科醫學會 主刊 제6-12회(1954-60) 학술경연회에서 발표하였다.

### 3. 1960-1980년

1964년 8월 31일에는 서울대학교 大學院 齒醫學科 博士課程 이수자가 첫 醫學博士學位를 취득하였고, 1965년 12월에는 矯正科가 신설되어, 임상진료과를 8과로 확장되었으며, 기초치의학분야에서는 齒科材料學(1961, 補綴學에서 별도 분리), 齒科藥理學(1965), 口腔解剖學(1966), 口腔生理學(1969), 口腔生化學(1969)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1966년 2월 28일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영문요람”(Bulletin, 1966-1967)을 발간하였고 1960년초와 중반에는 용산에 있는 미8군 영내에서 38齒科學會(미제 8군산하 치과관외관 모임, 38th Parallel Dental Society)주최 學術集談會가 종종 개최되었고, 미8군에서 비스를 대학까지 보내 教授, 助教, 大學生, 修練醫 등을 학회 장소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66년 4월 치과대학 도서관을 서울대학부속도서관 치의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1965년부터 『서울대학교綜合化』 계획에 따라 연건동에 메디칼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齒大가 연건캠퍼스내로 移轉이 확정되었고 1966년 1월 1일부터 附屬病院이 國立大學 附屬病院 特別會計에 依據 獨立採算制을 實施케 되었으며, 2년여의 공사끝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새 건물이 완공되었다. 1969년 12월 28일 한국 근대 치의학교육의 요람이었던 小公洞校舍를 떠나 蓮建洞의 새 校舍(대지 677평, 건물 3,667평)로 이전하였으며 부속병원은 1970년 1월 15일에 “齒科大學附屬病院”이라는 간판을 정문에 붙이고 개원, 진료를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정부 “추가정예예산”에 齒科大學 및 同 附屬病院 施設 機資材費를 위해 1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137대의 치료유니트 및 의사, Panorama X-선 촬영기 등 최신 의료장비와 기초교육 기자재 및 임상전단계 기자재와 교육용 CCTV를 갖추었다.

이 시기에는 의학박사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主論文 이외에 여러편의 副論文이 있어야 하였으므로 자연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원 연구생제도가 신설되어 대학원생(석·박사과정)을 포함하여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그 결과 석사 158명과 박사 108명(1961-1970)이 배출되었다. 1969년 12월에는 綜合化 10개년 계획에 의해 小公洞 校舍에서 蓮建洞 校舍로 이전해 옴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충실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960년말에는 그동안 뜸하였던 日本 文部省 장학금과 코뮌보계획에 의한 장학금 및 WHO 기금으로 海外研修가 다시 활발해져 7명의 젊은 교수가 일본과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 1년 이상 유학하였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연구한 논문을 국제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이러한 젊은 교수들의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국제학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67년에 경희대학교에서 치과대학을 설립한 이후, 1968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도 치과대학을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치의학교육은 3개 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1970年代에는 서울大 齒大가 小公洞 校舍에서 蓮建캠퍼스로 이전해 옴에 따라 새 건물에서 새로운 환경과 우수한 시설에서 교육, 연구 및 진료를 하게 되었다. 또한 1971年 大學院教育問題를 審議하기 위하여 齒科大學 大學院 學事委員會가 新設되었으며, 1972年 政府는 無醫面解消策으로 醫學系 修鍊醫 大學院生을 派遣키 위한 規定을 制定한 바 있어, 대학원에서는 臨時措置로 1972年第1學期부터 無醫村에 動員되는 大學院生을 위하여 敎科課程에 地域社會醫學(醫學系 博士課程 4學點) 및 地域社會 齒醫學(齒醫學系 碩士課程 4學點)을 設定하여 受講케하여 地域社會 開發에 參與하게 되었다. 1972年 1월부터 實施된 齒大附屬病院 特診制度는 患者의 希望에 따라 傳任敎授들이 診療하게 되어 患者의 便宜를 圖謀하고 敎授들로 하여금 患者의 診療의 質을 높임은 물론 齒醫學 研究와 學生臨床實習에 對한 意慾을 促求하여 大學附屬病院의 圓滑한 運營을 期하게 되었음은 勿論 臨床研究費 豫算確保에 寄與한 바 크다. 이시기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주요사항은 1976년 12월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의학교육연수원 주최를 제1회 齒科教育워크샵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매년 1-2차례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교육과정개발 등 대학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영국교육차관(ECCD)에 의해 電子顯微鏡 등 첨단 기자재가 도입됨으로써 연구가 활발해 졌으며, 또한 舊 藥大建物(대지 210평, 건물 577평)을 치과대학 기초관으로 인수받아 基礎學教室의 一部(口腔解剖學教室의 일부, 齒科材料學教室, 齒科藥理學教室, 口腔生理學教室, 口腔生化學教室, 口腔微生物學教室)로 사용함으로써 학생실습실, 실험실, 연구실 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런 공간의 확보로 영국차관에 의해 도입된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1972년초 朴正熙대통령의 하사금으로 최신의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를 구입하게 되었고 1976년에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통합계획에 따라 齒醫學 圖書分館

의 모든 장서를 의학도서관에 인계하여 서울대학교 도서관 의학계분관으로 통합 운영되게 되었으며, 영국교육차관(ECCD, 1976-77)에 의해 電子顯微鏡등 50여종(\$ 516,911)의 연구기자재가 도입되어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 10월 30일에는 [서울치대 학술지] 제1권 제1회 (창간호)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後에 齒大論文集으로 改稱 1982).

1978년 7월 15일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법률 제3056호에 따라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통합되어 서울大學校病原이 설립되고 치대부속병원 [第3診療部] (齒科診療部)가 되었으며 임상교수와 기초학 교수 모두가 서울대학병원의 겸직교수로 발령받게 되었고, 1980년 3월 7일에는 그간 확보하지 못했던 口腔微生物學 전임교수를 충원함으로써 8개의 기초치의학분야의 교수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으며, 1980년 4월에는 서울대학교 규칙 제525에 의거 치과대학부설 [齒學研究所]가 설치되어 영국차관으로 도입된 연구기자재를 치학연구소가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알찬 연구를 할 수 있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 1973년 설립되었으며, 1978년에 부산대치대, 전남대치대, 전북대치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이 각각 설립되어, 10대 치과대학에서 치의학 교육이 이루어져 양적으로 치의학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 시작하였다.

#### 4. 1981-1990년대

서울 大學校齒科大學은 1981년 1월 第3診療部에 臨床口腔病理科가 신설되므로써 9개의 診療 및 支援科를 갖추게 되었고, 1981-82년에 미국 교육 EXIM차관에 의해 Physiograph등 약 50만불에 해당하는 研究器資料 (48종 194점)가 도입되어 임상전단계 실습실의 개선과 기초학분야의 연구기기를 보강할 수 있었다. 또한, 1986년 7월 제3차 OECF교육차관(제1차분) 125불 치과교육연구기자재 도입이 결정되어 87-89년에 透過電子顯微鏡, 走査電子顯微鏡등 연구기자재(102종 455점)가 도착되었고, 1990-91년에 제3차 OECF교육차관(2차분)에 의해 Ultramicrotome등 \$ 365,046<sup>00</sup>에 해당하는 연구기자재(30종 37점)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에는 국고차관 사업비로 4층 조직·병리학실습실에 TV Monitor 16대와 Video Tape Recorder 2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5년 5월 3일부터 中央圖書館分館 齒醫學圖書館이 再開館되어 92종의 학술잡지와 9,500여권의 장서와 의료정보실 매드라인과 문헌열람실 학생열람실 및 시청각교육실을 갖추어 치의학 연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1989년 12월 22일에는 구 창경초등학교부지에 서울大學校病院 齒科診療部 신축공사 기공식(지하 1층, 지상 8층, 대지면적 3,355평, 건축면적 655평, 연면적 5,064평[본관 4,405평, 주차장 659평])이 있었고, 1993년 5월 치과병원이 신축 완공되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임상교육과 연구 및 봉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1년에는 부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각각 치과대학을 설립하였고, 1982년에는 전남대학교가 치과대학을 설립하여 1980년대 말에는 국내에 10개 치과대학에서 치의학교육이 실시되게 되었으며, 1992년에는 강릉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설립되어 치의학교육의 발전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국내치과대학 설립년도

설립년도	대 학	설립년도	대 학
1946	서울대치대	1978	전북대치대
1967	경희대치대	1978	전남대치대
1968	연세대치대	1978	원광대치대
1973	조선대치대	1979	단국대치대
1973	경북대치대	1992	강릉대치대
1978	부산대치대		

### III. 맺 음 말

우리나라 각 치과대학은 대학의 실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口腔解剖學, 口腔病理學, 豫防齒學, 齒科生體材料學, 齒科藥理學, 口腔生理學, 口腔生化學, 口腔微生物學 등의 기초치의학 전공교실과 齒科補綴學, 齒科保存學, 口腔顎顔面外科學, 小兒齒科學, 齒周科學, 口腔顎顔面放射線學, 口腔內科診斷學, 齒科矯正學, 口腔癲醉學 등의 임상치의학 전공교실을 설치하여 각각 해당전공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들 전임교수와 전공교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각 19개에 달하는 치의학 관련 專攻學會의 창설과 발전 및 운영에 회장단으로서 또는 주요 임원으로서 관여하며 우리나라 치의학 학문발전에 기여하여 오고 있다.

또한 각 齒科大學에서는 매년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에 치의학 교육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大學發展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식 교육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치의학 관련 각종 國際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세계의 중심적인 齒科大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齒醫學教育의 目的은 教育, 研究, 診療(奉仕)의 3가지 部門에 둘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3가지 목적을 충실히 성취할 수 있는 치의학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 卒業後 일차구강진료능력 개발을 위한 適定한 教科目 連繫

教育에 있어서는 學部(本科) 教育이나 大學院教育은 國際齒科教育 水準에 比하여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나 學部教育에 있어서 講義內容이 지나치게 細分 專門化되는 傾向이 있는 것 같고, 講義나 臨床實習이 重複되어 많은 時間을 浪費하는 傾向이 있기에 새로운 世紀에는 基礎教育과 臨床教育의 一部를 連繫하여 Block Lecture도 試圖해 볼 必要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 2. 臨床實習의 教育 效率性의 極大化

齒學 臨床實習教育이란 將次 開業齒科醫로서의 實技教育의 場으로 생각되나(98학년도부터 임상조기노출) 外來敎授 制度에 의해 教育內實의 一部를 認定할 수 있으나, 現行 大學病院의 制度上(指定診療制度 등으로 因하여) 專任敎授들이 學生教育이나 研究에 專念할 수 있는 機會를 喪失하고 患者診療에만 치중하는 傾向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兼任敎授(臨床敎授나 基礎敎授는 勿論)에 兼任手當을 支給하여 現行制度를 改善하여 學生臨床教育의 忠實化, 研究, 診療에도 最善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한다.

#### 3. 助教制度의 活性化

연구分野에 있어서 現行 基礎學科에서 大學院學生에 의하여, 臨床學科에서는 전적으로 專攻醫(병원에서 채용되어 있으며 대학과는 무관)에 依存하고 있으나 敎員數에 알맞는 研究助教의 確保(本 大學 出身이나 理工系 出身의 卒業生을 公益要員으로서 兵役免除 惠澤을 부여한다)하여 敎授研究 遂行을 圓滿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 研究 機資材의 中央化

研究文化의 繼承化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各 教室에 分散되어 있는 各種 研究機資材를 開放化 또는 中央化하여 敎育 및 研究遂行을 極大化할 수 있게 한다(研究內容別 機資材 機構改編)

#### 5. 21世紀를 대비하여 齒科醫療 制度의 改善

Comprehensive Dentistry, Home Dentistry, 예방적 初期治療, 老齡化에 따른 Home Doctor에 대한 敎育도 必要하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예방기술의 발전에 따른 구강질환 양태의 변화에 따른 교과목에 예방 중심적 교육으로의 전환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6. 學士課程 履修學點의 下向調整

현재 대학 학사과정의 이수학점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선후수조정 중복교과 내용의 조정 질병양태 변화에 따른 교과목의 통합합등을 통하여 필수이수학점을 하향조정하고, 선택과목의 개설 등을 통하여 내실있고 다양한 형태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齒科大學 附設研究所의 活性化

각 치과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각종 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확보와 연구시설과 연구비의 확충 및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소의 연구중심을 현재의 전공교실중심의 연구제도에서 기초와 임상 연계되는 연구과제별 공동연구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8. 平生敎育의 強化

치의학敎育 연수원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신진교수의 敎育과 훈련, 개원치과의사를 대상으로한 보수敎育과 연수를 실시하는 평생敎育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보수敎育과 같은 평생敎育 프로그램을 등창회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도 모색 해 보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제반사항들을 개선발전 시켜 나가므로써 국내 6개 國立齒科大學과 5개 私立齒科大學은 敎育 研究 및 奉仕機關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인 齒醫學敎育研究機關으로서 도약을 하여, 인류의 건강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李春根: 齒大病院 60年史, 서울 大學校病院. 病院報 14, 15, 1982.
2. 金圭植: 제 4편 學科 研究所의 活動과 業績(齒科大學 齒醫學科) 950-953, 서울 大學校 40年史, 1986.
3. 金明國: 서울大學校 學問研究 40年의 回顧와 展望(齒學研究), 123-129, 서울大學校 學問研究 40年(1), 1987.
4. 安炯珪: 서울 大學校 同窓會報 第119號, 1988.
5.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叢報] (1922-1989), 1989.
6.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年報] 제1호-9호, 1987-1995.



7. 서울대학교 齒科大學史(1922-1991), 1991.
8. 金鍾培:公衆口腔保健學, 高文社, 1994.
9.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및 齒科大學 附屬病院 現況 1996. 11. 30.
10. 大學院 教育의 強化策 研究, 서울 大學校 大學院 1971.
11. 大學院 教育運營改善에 關한 研究, 서울 大學校 大學院 1972.
12. 서울 大學校 病院史, 서울 大學校 病院, 1993.
13. 全國 齒科大學長 協議會 第一回 치과교육위크샵, 1988.
14. 全國 齒科大學長 協議會 第二回 치과교육위크샵, 1989.
15. 서울 大學校 論文集(自然科學) 第一輯 1954. 3. 서울 大學校
16. 서울 大學校 論文集(醫藥系) 第二輯 1970. 10. 서울 大學校
17. 서울 大學校 學科案內:서울 大學 敎 學生 指 研究所 1963.
18. 서울 大學校 二十年史(1962-1966) 서울 大學校 20年史 編纂委員會
19. 서울 大學校 三十年史(1946-1976) 서울 大學校 30年史 編纂委員會
20. 서울 大學校 敎授論文著書 目錄(1946-1976) 1977. 7. 서울 大學校 出版部
21. 統計期報 第一輯(1962. 6) 서울 大學校
22. 統計年報 第二輯(1963. 6) 서울 大學校
23. 統計年報 第八輯 - 第一五輯 (1969-1976) 서울 大學校
24. 서울 大統計年報 第一六輯 - 第二八輯(1977-1988) 서울 大學校
25. 서울 大學校 統計年報 (1990-1996年版) 서울 大學校
26. 研究業績 (1987-1995) 서울 大學校
27. 年報 第一五號 - 第三二號 (1978-1995) 서울 大學校 病院
28. 서울 大學校 病院史 1993 서울 大學校 病院
29. 서울 大學校 40年(寫眞輯) 1946-1986 1986 서울 大學校